

안전도시를 위한 지역별 대책 추진

인천시 안전정책과
2019.11.7.

광주시 재난예방과
2019.11.6.

세종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2019.10.8.

인천시, 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분야별로 운영 중인 시설 관련 시스템을 현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지아이에스(GIS) 플랫폼과 연계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교량·터널·지하도상가, 위험시설, 급경사지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 종합적인 대처가 어려워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19년 12월까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4,885개소), 건축행정시스템(23만 4,219동),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1,980개소)을 GIS 플랫폼에 연계해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후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3차원 시설물관리체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체적(3D)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광주시가 전기화재 등 겨울철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시설과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시장별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포별 안전점검 등급, 지적사항 및 조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설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스마트 분전반* 시범 보급 등 시설 개선 ▲안전교육과 화재보험 가입 확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조기경보 체계** 구축 ▲소방특별점검 및 소방교육 확대 등 모두 6개 세부전략이 담겼다.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세종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권·긴급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심사와 건축공사현장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7월 설치되었다.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전문가를 두고 건축허가신청서의 피난·방화 등 안전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대형 건축 공사장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 전문기술 검토가 가능한 건축전문가와 합동 점검 및 불시 점검으로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전기화재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분전함을 개별 점포 150곳에 2020년 상반기 중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

** 개별 점포에 불꽃·연기 감지기 설치, 공용 부분에 CCTV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관할 소방관서로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전통시장 17곳 1,800여 개 점포에 구축 예정